

제 95 호

연중 제 25 주일

(강림 후 16)

1974. 9. 22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 료】

秋 風 落 葉

이 대 권 신 부



9월에 9장관이 퍼져지고 9월에 9장관이 다시 났다. 이젠 뭐가? 가을인가 봅니다. 계절따라 가고오는 구름과 같이 국가나 단체나 가정이나 변화가 많습니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자주 신진대사가 이뤄져 부작용이 없는 건전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니다. 9월은 우리 교구 및 각 본당결산 예산등의 때여서 교형자매 제위들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비단 경제면에 있어서 경영에 고집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의 결산과 예산에 차질이 없는지? 인격과 품위와 자신의 가치관에 있어 보람있는, 짜임새 있는 살림을 진실로 하고 있는지? 말씀입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추풍낙엽의 신세가 되어야 할 군상들이 주님앞에 그릇된 장부정리를 하여 결산과 예산을 보려고 할때 주님은 "그대여 좀 물려나 주시요. 잘 자신을 반성하여 올바른 청산서를 내도록 노력하시요" 말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경말씀의 핵심은 한 부자집 재산 관리를 하던 사람의 경영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네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어 그릇된 길로, 그릇된 수렁으로 기울어져 가는 인생을 새로운 광명의 길로, 희망의 평야로 인도하여 보람있는 인생의 가을, 알찬 살림을 꾸려가도록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착하게 예산을 세워 보람있는 생활을 하려는 한 어머니 실화를 얘기해 볼까요? 20여년의 결혼생활을 통해 많은 자녀를 낳고 육신 생활면에 있어 넉넉지 못한 처지나마 주님께 감사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만이 천직으로 알고 살던 차에 남편이 10년간 취직도 못하고, 이것마저도 천직인가 보다 하고 불편없이 살던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니다. 이제는 눈앞이 캄캄하여 "주님 이렇게 쓴잔을 계속 주시렵니까?"하고 원망도 좀 하였으나, 그래도 용기를 내고 자녀들이나 잘 가르쳐 살고져 하였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는 듯 한아들이 팔성꾸러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고집조사하였으나 여의치 못 하였습니니다.

그나마, 살아보자고 취직한 보험회사의 일을 보다가, 수급한 돈마저 몽땅 잃어버리는 비운을 당했습니다. 이제 만사는 축풍낙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입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들의 결산과 예산, 주님께 제출할 청산(清算)의 백서(白書)를 우리네 양심대로 알뜰히 준비해야 겠습니니다.

(전주 중앙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임당송** 나는 백성의 구원이니, 어떠한 환난중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영원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 주리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55: 6-9 경향잡지 9월호 p. 68)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출계송**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는 하느님 모두들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 찬미하라 ◇

□**제2독서** (디모테오 전서 2: 1-8 성서 p. 476)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뭉구야**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시지만 가난한 자 되셨으니 그분의 가난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 되었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16: 1-13, 성서 P. 174)

너희는 하느님과 동시에 금전을 섬기지 못한다.

□신자들의 기도

1. 성 교회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목숨까지 바치신 그들의 용감이 아름답게 꽃피도록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2. 6. 25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6. 25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도 그들의 뒤를 이어 성 교회가 날로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우리에게 성신 주소서. ◇주여.....

3.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상의 죽음앞에서까지 부모님을 염려 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그 효성을 본받아 당신이 명하신대로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며 사랑과 존경으로써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 주여 비오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당신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아멘.

(3) 성찬의 전례

□**불림** □**성찬식**
□**영성체송** 나는 착한 목자이니, 나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는도다.

(4) 폐 회식

* 숲 정 이 산책 *



김신부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사색하는 생활을 읽고

김 훈 (데레사)

미사 여구를 나열하여 서평을 쓰려고도 하지 않으며, 또 내용을 설명코지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가 재삼독 후 고찰하고도 복잡다단했던 정신생활에 일종의 청신제와 안정제의 역할을 해주었으며, 평상생활의 지친, 좌우명이 되어 주었고, 또 서민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읽기에 지치지않고, 고귀하고도 안빈낙도하는 그 교사직에 있는 저자의 일상생활에 만강의 존경 공감 속에서 이 책을 읽게된 기회에 감사를 올려 마지않노라.

그러기에 초판이 나오자마자 일시에 배진이 되어버려 재판을 서둘러 달라는 미(未)독자들의 서신이 이 고을저 고을에서 오리만치 대 인기리에 절찬과 아낌을 받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교육적이기도 감빈(甘貧)하는 그 내용은 경조부박하고 고도의 물질명명의 독소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세에 처하여 가장 정서적이고도 사색 속에서 그날 그날을 진실하게 일보 일보 진실하여 살아 나야 할 여고, 여대생들에게 양서가 되어줄 것을 확신 함으로써 필독하시길 권하여 마지 않는다.

(복자성당 교우, 65세)

※ 사색하는 생활

이 거 영 선생 지음 (성심여고 교사)

성모병원 직원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성모병원 직원을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인원 2명(남자)
2. 할 일 ① 안내 ② 잡역
3. 응모자격 ① 18세이상 50세 미만의 남자
② 중학교 졸업 이상의 남자
※ 천주교 신자 우선
4. 제출서류 ① 자필 이력서 1통
② 명함판 사진 2장
5. 심 사 서류 전형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제출기한 9월 28일(토) 오후 5시
7. 제 출 처 성모병원 사무국

1974. 9. 19

전주 성모 병원장

한국 천주 교회사 ②

4. 문호 개방과 신앙의 자유

1905년 : 신교(信敎)의 자유가 공인됨

5. 일본의 탄압

1910년 : 교우 73,517명, 신부 61명(외국인 46명), 수녀 59명, 신학생 41명, 성당 69처

1940년 : 일본, 평양의 성당을 일본군 병사(兵舍)로 징발하고 신부들을 시외로 추방

1941년 : 평양 교구 주교, 미국 신부 35명 구금
광주, 춘천교구 애란 주교 신부 32명 구금

1942년 : 미국 신부 추방
서울 교구 라리보 원주교 교구장직 사임
용산의 대신학교 폐쇄
광주 교구장에 일본인 신부 임명
대구 문주교를 강제로 사임시키고 일본인 신부 임명
노기남 주교, 최초의 한국인 주교로 성성(成聖)

1944년말 : 교우 183,666명, 신부 234명(외국인 102명)

6. 6. 25 전란과 공산당의 박해

	체 포	피살	육사	행방불명	생 환
교 구 장	6		4		2
신 부	103		69		34
수 사	41		14		27
수 녀	52		12		40
신 학 생	4		4		0
계	206		103		103

1. 위의 통계에 평신도의 수난 상황은 통계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포함 시키지 못했음

2. 위의 통계에 전주 교구의 고 김현배 주교님을 비롯한 김재덕 주교님, 신부님들의 수난 상황이 빠져 있음을 유감으로 여김 (한국 가톨릭 어제와 오늘 참조)

7. 순교자의 영광

1925년 7월 5일 : 기해, 병오 박해시 순교자들 79위가 복자로 시복됨

1967년 10월 6일 : 병인 박해시 순교자들 26위가 복자로 시복됨

8. 현재

교우 953,799명, 신부 962명(외국인 322명)
수사 204명, 수녀 2,448명, 신학생 885명

◇ 바로 잡을 ◇

(94호 15일자 2면 한국천주교회사)

1. 허균이 북경에서 12단 얻어온 때는 1910년이 아니라 1610년 임
2.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받은 때는 1783년이 아니라 1784년 임
3. 가성적 계급이 아니라 가성직 계급 임
4. 3면에 게재한 숲정지에서 순교자한 일곱 분은 1967년 10월 6일에 시복된 복자 들임.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② 7 4 2 5

서중.교육위원회 앞(친북동)

업 소 아 과 의 원

업 의 도(시몬)

TEL. ② 6 8 5 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뒀

□양 지 쪽□



9월이 오면

—이 저주받은 자들아

한 상 갑

“우리는 미사 가방을 이곳 형무소(주: 만포 형무소)까지 가지고 왔다. 우리는 때때로 미사 성체를 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감방앞 복도에 사람들이 왕래하기전 이른 새벽에 가방 몇개를 포개 놓고 제대를 만들어 미사를 올렸다. 신부 한분만 미사를 드리고, 미사 드리는 신부는 남루한 죄수옷 바람으로 영대(領帶)를 옷 저고리 속에 감추고서 미사 성체를 올리었다. 제현경, 거룩하시다. 거양성체, 영성체 때에는 우리 감방의 벽을 쿵쿵 두들겨서 옆 감방에 있는 수녀들에게 미사의 진행을 알려 주었다. 성체를 분배할 때마다 우리 중의 하나가 나가서 도와주곤 했다. 당번에 걸리면 축성한 성체를 조그마한 판에 넣어가지고 나가서 다른 식기와 함께 수녀들의 감방에 더밀어 주었다. 그러면 수녀들 중의 장상(長上)이 성체를 받아 자기 감방에 있는 수하(手下) 수녀들에게 영하여 주었다.” (한국 가톨릭 어제와 오늘 P. 403)

함흥 교구의 함흥 본당신부였던 엘리지오 경 (E. Kohler 景) 신부님이 1949년 5월15일에 복괴의 악랄한 손에 붙들려 고생하던 기록의 한 토막이다. 당시 50세였던 신부님은 약 4년간의 지겨운 고통 끝에 석방되었다. 얼마나 그 고생이 심했던지, 신부님은 “차라리 공산당들에게 총살당하는 편이 나을것만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마다 9월이 오면, 우리들은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죽음을 특별히 묵상한다. 한국에 천주교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흘리신 그 피와 고통스러운 매질이 100여년이었고, 교구장마저도 사임시키고 신학교의 문을 닫는 일본인들의 잔인한 악랄함과, 학살을 서슴치 않고 죽음의 행진을 재촉한 공산도배들의 모진 압박을 이겨냈기에 우리는 오늘 100만신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장한 죽음을 기억해낼 줄 알고 감사드리는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그뜻을 오늘에 되살리는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다. 그리스도가 이땅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형제들의 친구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땅에 고통받고 병든 불행한 형제들이 있는 한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 어려움을 이겨 내는 일이 바로 순교 정신이고, 참 크리스찬 생활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억눌려 제 권리를 못찾는 형제들을 외면할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 가거라.” (참조: 마태오 25장 41-46절)

요심이 (61) 김병오

사이나트사가 8.15사건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잘못한것도 유감의 뜻만 표하면 해결되나?

그렇다면 나도 할일이 있지

아빠가 교무무를 완납하지 못하였으니 유감의 뜻을 포함합니다

□양서안내□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 23<월> 독서(잡언 3:27-34 성서 P.)
복음(루가 8:16-18, 성서 P.146)
- 24<화> 독서(잡언 21:1-6,10-13 성서 P.)
복음(루가 8:19-21, 성서 P.147)
- 25<수> 독서(잡언 30:5-9 성서 P.)
복음(루가 9:1-6, 성서 P.150)
- 26<목> ◎ 한국 순교 복자 대추일

- 독서(마카베후서 6:18-21,24, 성서 P.)
- 복음(로마 8:31b-39, 성서 P.353)
- 27<금> 성 빈첸시오 사제 기념 (7월 19일)
독서(고린토전서 1:26-31 성서 P.)
복음(마태오 9:35-38 성서 P.20)
- 28<토> 성 벤체슬라오 순교
독서(전도11:9-12:8, 성서 P.)
복음(루가 9-44b-45 성서 P.153)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테나도)

TEL. ② 2 9 1 8

경전라사 옆 체신청 뒤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고)

TEL. ② 2 6 4 6

아판원 옆 구 대구집

교우들의

건강 상담과 물리 치료

...고혈압... 신경통... 해초천식...
지압... 소화불량... 소아마비... 기타...
...병명 미상의 질환에 특효

김 용 택(모이세)

연락처: 진북 고등 공민학교 옆
(진북 2동 1157의 10)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본당 순회 교육 (주최:교구 사무 협의회, 9월 21일(토)~22일(일))

분 당	강 사	분 당	강 사
신태인	범석규신부, 유기동, 이종욱씨 이양춘수녀	황 등	김종택신부, 정주복, 한상갑씨
문율동	문정현신부, 조해형, 박춘근선생, 김영희수녀	무 주	지정환신부, 천진, 조상렬씨, 신영숙수녀

2. "파미아의 모후" 꼬미씨움 임원 개편 (9월 15일자)

단장 한 형수(베드로, 서학동), 부단장 전 종근(야고비, 복자),

서기 이 영희(다두, 전동), 회계 김 인애(펠로미니, 전동), 보좌서기 김 영숙(세시리아, 전동)

※ 임원 개편후 지도신부 인솔로 50여명의 단원이 치명터 순경이를 참배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 정의를 실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6년간 수고하신 전 임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 김 후만(비오, 전동), 부단장 유 희진(시몬, 전동)

서기 한 형수(베드로, 서학동), 회계 장 춘수(도민교, 전동), 보좌서기 이 영희(다두, 전동)

3. 한국 푸르실리로 제 4차 전국 울드레아 (10월 3일 오전 9시-오후 5시, 대전시 대흥동 주교좌 성당) 모든 푸르실리스트라 형제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복 석

1. 사도회 정기 총회 (오늘 오후 2시 강당)
고문, 임원, 구역장, 반장, 신심 단체 대표, 구역대 표 전원 참석 요망
 2. 주일학교 치명산 참배 (오늘 오후 2시 미사후 출발)
① 성경책, 어린이 미사책 지참
② 학부모님의 협조 바람
 3. 합동 위령 미사 (30일 오전 6시)
축석절을 맞아 부모 친지들의 영혼 위해 합동 미사 봉헌합니다.
 4. 미사 시간 (오늘 아동 미사 오후 2시)
 5. 애령회 소식 애령회 임원으로 봉사 해 주실분 애령회장께 연락, 많은 협조 바람
- 지난 주일금 41,471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현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주일학교, 공소 합동 치명산 참배 (오늘 9시 출발 본당)
3. 추수 감사절 합동 미사 (30일<월> 추석)
미사 예물 봉투는 사무실에 접수바람
4. 성당 신축위한 어머니합창단 가정 필수품판매 중단
각 본당 신부님, 교우들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서학동, 백영순 1,000원 회사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남노송동, 박 모니까 (1,000원)
누계 1,523,497원
지난주 신축 성미 3말 누계 217말 5되
□ 지난주 봉헌금 18,690,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누갈다 모지참배
중·고등학생: 오늘 공식 미사 후
준비물: 목주, 가톨릭 기도서, 성가책
3. 젊은이들을 위한 광장
일 시: 74. 10월 3일
장 소: 대둔산 (1일 코스)
준비물: 집식, 500원
※본당내 모든 젊은이들 참여 바람
4. 9월은 교무금을 완납하는 달입니다
교무금 납부 현황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확인 하시 고 미납된 교무금 속히 납부바람.
5. 수재민에게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의연금품: 의류 (100점)과 3,615원
□ 지난 주일 봉헌금 8,61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첫 영성체, (어제 영세한 분들 오늘 공식미사)
착하고, 열심하고, 거룩하고, 건강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사도회 정기 총회 (오늘 저녁 미사 후)
결산 및 예산 심의
3. 위령 합동 미사: (월 30일 오전 10시 미사)
4. 복자 애령회 정기 총회 결과 보고
①임원: 회장 전 야고비(종근)
부회장 봉 수산나(영숙) 임 마리아 귀임
서기 허 메레사(순덕) 회계 신 미카엘라(형순)
②재무보고: 총 수입 263.026 총 지출 43.610
잔액 219.416 (은행과 신용조합)
5. 지난주 성미: 1말 6되 누계 308말 8되
6. 지난주일 봉헌금: 13,000원
7. 수해 의연금: 본당 7,480원 성우회 5,000원
전매청 순경이 회 2,000원 합계 14,480원
의류: 216 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본당 결산 보고 및 예산편성(오늘 오후 2시)
사도 회원,전원,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 고문단들의 참석 바람.
2. 추석 합동 위령 미사 봉헌 (30일 오전 6시)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 후)
4. 교리 교사, 학생회, 고등학교 셀, 성경 동지회
부제님께서 지도 하시겠습니다.
5. 복자 성월 동안 치명자 모지에 많은분 참배 바람
6. 수해 의연금 10,000원 교구에 전달 했습니다.
지난 주일 수채금 3,450원
◇ 주일금 9,17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송 재 진

1. 부부 예비자 교리 (매주 월요일 저녁 미사 후)
2. 중·고등학생 예비자 교리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 누갈다 모지 참배 (9월 26일 오후 4시 30분 현지미사)
4. 재경부 소식
9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교무금을 완납 합니다.
5. 사도회 소식 (9월 26일 사도회 정기총회 저녁미사후)
6. 추석 합동미사 추석 합동 위령미사
미사시간 오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7. 글라라 형제회 (월례회: 다음 주일)
심의회 토요일 (28일) 오전 10시
8. 교도소에서 미사: 오늘 오후 1시반
미사 참례 하실분 1시반까지 성당 집합
지참물: 기도서 성가책

◇ 금주의 순경이 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양 요안나(귀선) 전동 구역장

지난주 봉헌금 47,102원 감사합니다.